

순창군, 어르신 노후 복지증진사업 확대

올해 노인복지예산 36억원 증가한 384억원 편성 1400명에 개인별 맞춤서비스...955개 일자리 창출

순창군이 지역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돕기 위해 복지증진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순창군은 올해 노인복지 예산으로 전년 대비 36억원 증가한 384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군은 이달부터 기존 노인 돌봄 및 종합 서비스사업을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사업으로 통합, 새롭게 시작한다.

기존 안부 확인·가사 지원 위주 서비스에서 벗어나 개인 욕구별 맞춤 서비스를 1400명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현장에 방문, 개별상담을 통해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난해 진행된 경로당 급식 도우미 지원의 경우 동절기 4개월을 포함, 농사일이 바쁜 농번기에도 2개월을 더 확대해 일손 부족 해소에 많은 도움을 줬다.

올해도 매월 20일씩 총 6개월을 운영해 노인들에게 점심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일자리 창출 효과도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군은 또 경로당 보수와 지원사업에도 행정력을 집중한다. 올해도 경로당 신축, 소규모 환경 개선사업, 냉방기 보급 등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각적인 방면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군은 재가 장기요양 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계속해서 지원한다.

지난해 조례를 제정해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 60시간 이상 근무자에 매월 2만원씩 지급한 처우개선 수당이 올해도 이어진다.

또 체육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단계적으로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도 더욱 확대한다.

지역 환경개선사업, 내 고을 안전지킴이 등 공익형 17개 사업, 삼 채소, 표고버섯 등 시장형 사업단을 지난해보다 84명이 증가한 955명으로 확대, 운영한다.

이 밖에도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이하인 노인에게 선정기준액을 완화해 단독 가구는 월 최대 30만원, 부부 가구는 월 최대 48만원까지 지급한다.



순창군이 지역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돕기 위해 복지증진 시책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경로당에서 맞춤서비스를 받고 있는 어르신들. <순창군 제공>

황숙주 순창군수는 "올해도 노인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하도록 생활안정과 다양한 일자리 사업 지원으로 더욱더 따뜻한 복지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순창=장양근 기자 iyg@

군산시, 반려동물 내장형 마이크로 칩 지원

마리당 2만원...카드형 동물등록증 발급도

군산시에 따르면 반려동물에 내장형 마이크로 칩을 심는 동물등록을 지원한다.

또 카드형 동물등록증도 발급하기로 했다.

군산시에 따르면 동물등록 방식 가운데 내장형 등록방식은 훼손·분실 가능성이 작고 영구적이어서 유기·유실 동물을 효과적으로 방지 할 수 있다.

내장형 등록비용은 마리당 2만원을 지원하며, 1인 2마리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군산이어야 하며 관내 동물병원에서 내장형 동물등록을 한 후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와 함께 반려견에 대한 책임의식 강화 및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소유자에게 카드형 동물등록증을 발급하고 인식표 및 고리형 케이스도 제공한다.

카드형 동물등록증은 올해 신규등록자부터 소유자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우편 발송되며, 기존 등록자는 군산시 농업축산과로 신청하면 된다.

김창환 군산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반려동물과 관련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바람직한 반려 문화를 지속해서 확산시켜 나가겠다"면서 "동물등록에 대한 반려견 소유자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는 동물등록을 해야 하고 외출 시에는 반드시 목줄 및 인식표를 착용시켜야 한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고창군, 농촌 빈집정비사업 대상자 모집

140동 선정 3월부터 추진

고창군은 22일까지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농촌 빈집정비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농촌 빈집정비사업은 낡고 불량한 농촌 빈집의 철거로 환경보전과 농촌지역의 경관개선을 실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1년이상 거주·사용하지 않은 주택 또는 건축물로 건축물 소유자가 신청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고창군은 올해 예산 4억2000만원을 확보해 총 100만~300만원을 지원해 약 140동의 빈집을 정비할 예정이다.

농촌 빈집정비사업에 희망하는자는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3월 중 사업대상자를 확정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고창군 관계자는 "방치된 빈집정비를 통해 농촌경관 개선은 물론 빈집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범죄나 청소년의 일탈 등 유해환경을 없애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고창=김형호 기자 khj@

남원 '시청로' 남원대표 거리로

60억원 투입 도로 전선 지중화·노상주차장 등 정비

남원시가 2월부터 시청 앞 도로인 '시청로'를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남원시는 시청4가-남원대교 구간 도로 전선과 통신선로를 지중화하고 화단형 중앙분리대 및 교통 정온화 시설 설치, 노상주차장 및 인도 정비 등에 60억원을 투자해 올 연말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청로는 시민과 방문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남원의 중심도로나다.

하지만 1980년대에 교통위주로 설계돼 최근의 사회문제에 대두되는 기후변화 대응 능력이 떨어지고 무질서한 노상주차와 자전거 도로의 단차, 경사진 인도 등 많은 불편을 초래해 왔다.

시는 2018년부터 상가와 주민들의 의견

을 수렴해 도로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기후변화 대응 및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우선적으로 도시림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특히 도시 열섬 현상 완화 및 녹지 공간 조성을 위해 화단형 중앙분리대 및 가로변 식수대를 설치하고 노티나무와 은행나무(기존 가로수 활용)를 식재토록 할 계획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시청로 정비가 완료되면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에 그동안 초래됐던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많이 해소될 것이다"며 "정비된 시청로가 남원 대표 거리로서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남원시청4가-남원대교 구간 도로정비사업 조감도.

한도 내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3월 19일까지다.

접수처는 전북에너지서비스(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일자리정책과다.

사업 선정 이후 도시가스 공급 회사인 전북에너지서비스에서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도시가스공급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말 대상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도시가스 공급설비 보조금 지원 확대 실시로 안전성이 우수한 청정에너지 공급으로 시민의 행복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

익산시, 도시가스 공급 사업 지원

단독·연립주택 등 70가구 설치비 등 500만원까지

익산시는 도시가스 공급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3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해 단독, 다세대, 연립 주택 등 70가구를 대상으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를 지원한다.

시는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용의 80%

정읍시 초대 민선 체육회장 강광씨 취임

정읍시체육회 첫 민선 회장인 강광(사진) 회장이 취임했다.

지난 18일 열린 취임식에는 유진섭 정읍시장을 비롯해 최낙삼 정읍시의회 의장, 유성열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정읍시체육회 이사 및 대의원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이·취임식은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체육회기 입장 및 전담, 유진섭 정읍시장의 이임사, 강광 신임회장 취임사, 체육회 임원 소개 순으로 진행됐다.

취임식에는 소년체전 및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신대인초등학교 정연현 선수에게 장학증서 및 후원금을 전달했다.

강광 정읍시체육회장은 "스포츠는 건강이요, 경제요, 국력이다"라는 신념으로



오직 시민의 건강을 다지고 건강한 정읍 사회를 조성해 전국대회 유치 및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잘사는, 행복한 정읍 건설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광 정읍시체육회장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자치단체장의 체육회장 겸직이 금지됨에 따라 실시한 선거에서 단독 후보로 출마해 무투표 당선됐다.

회장 임기는 취임한 18일부터 2023년 정기총회 전날까지 3년간이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보행자는 또 다른 정지신호입니다

교통사고의 약 40%가 보행자 교통사고 도로 위에선 보행자가 최우선입니다
자동차든 사람이든 보고, 서고, 움직이는 습관이 도로 위 생명을 지킵니다